

#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



##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

야외모임, 캠프,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

##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(식약처 인증) 착용하기

마스크 착용시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 
안면에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하기



##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, 활동량 줄이기

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,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
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



##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

온몸을 구석구석 씻고, 특히 필수적으로  
손·발·눈·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

## 5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,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·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

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 
과일·야채 섭취하기



##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

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,  
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



## 6 환기,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

실내·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 
적절한 환기 실시하기



문의 : ☎ 120 다산콜센터

미세먼지도 재난!

#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

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수록  
맑은 서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.

당일(0~16시)  
미세먼지 수준이  
**'나쁨'**  
(50  $\mu\text{g}/\text{m}^3$ 초과)

내일 예보도  
**'나쁨'**  
이상일 경우



## 서울형 미세먼지

#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



당일 17시 기준 서울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됩니다.

- ① 당일(00~16시) PM2.5 평균  $50\mu\text{m}/\text{m}^3$  초과
- ② 익일 나쁨( $50\mu\text{m}/\text{m}^3$  초과)이상 예보 (※ 금·토요일, 익일 공휴일 제외)



### · 시민 참여형 '차량 2부제'

-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이,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  
(※ 주말, 공휴일 제외)



### · 공공기관 '주차장 폐쇄'

- 제외대상 : 외교용·보도용, 장애인·노약자·영유아·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·장례식, 친환경차, 긴급공무수행 차량(소방, 경찰, 의료 업무 관련 등)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외  
- 시민편의 문화, 체육,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 시행



### · 공공사업장·공사장 '조업 단속'

- 대기배출사업장 : 공공기관 운영 1~3종 사업장  
- 건설공사장 : 공공기관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
※ 야외 건축공사 부지의 건축철거, 절단, 토석, 도장 등의 공사



### ·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'일제 단속'

- 노후경유차 단속, 자동차 공회전 단속, 민간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 
- 폐쇄된 공공기관 주차장 인근 등 '불법 주정차 단속'

##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

# 익일 21시에 자동 해제됩니다



※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조기해제 가능



##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?

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"나쁨"이 지속될 경우,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, 공장,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.



## 왜 필요한가요?

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.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,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



## 언제 시행되나요?

2017년 7월 1일부터 당일(0~16시) 미세먼지 '나쁨'(평균농도  $50\mu\text{g}/\text{m}^3$  초과)이고, 다음날 예보가 '나쁨' 이상일 경우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.

(※ 금·토요일, 익일 공휴일 제외)

## 미세먼지의 위해성

- 위험적인 1군 발암물질 -

2013년,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(IARC)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. 그만큼 치명적입니다.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스며들어 기도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. 초미세먼지는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낭까지 침투할 만큼 두려운 존재입니다. 비염과 천식, 기관지염, 중이염, 후두염에서부터 심근경색,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에 아토피까지. 미세먼지, 담배를 피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.